

목어

동물재판



김정자 언론인 본지 논설위원

'두더지를 추방하되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물색, 그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안전통행권을 주며 유예기간은 14일로 한다.'

16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정식 동물재판 판결내용의 하나다.

재판은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 부근 한 마을 농부들이 두더지를 인해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며 두더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재판은 정식으로 진행돼 두더지 퇴치명령이 내려질 뻔했으나 판사는 "두더지는 해충을 없애는 이로운 동물로 그들에게도 적당한 땅을 마련해주고 개나 고양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통행권을 주어야 한다"는 두더지를 대리 변호사의 요구를 수용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르네상스 태동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세속이나 종교 재판소에서 동물재판은 흔하게 진행돼 왔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동물과 매뚜기 파리 벌 지렁이에 이르러서까지 광범위한 동물이 피고로 등장, 파문과 화형 교수형 생매장 등의 극형을 받았지만 두더지 재판처럼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 받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런 한국에선 피고자 아닌 원고로서 도롱뇽이 법정에서 모양이다. 피고는 환경부장관.

경부고속철 대구 부산간 노선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롱뇽을 비롯한 동식물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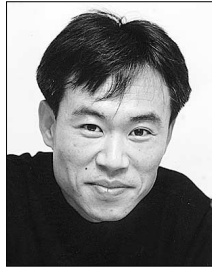
16세기 동물재판에서 이미 존재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었던 두더지 재판을 기억하며 21세기 한국에선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다.

지금 한국 사회엔 '허공꽃(幻化)'이 만발했다. 이미지가 실재를, 허상이 실상을 압도하고 있다. 이른바 '외모지상주의'라는 집단적인 눈병에 걸린 것이다. 천민자본주의, 학벌주의, 연고주의와 같은 고질적 병폐에 또 하나의 병증이 도신 것이다.

깔끔한 오펜과 상대에 호감을 주는 자기 연출이 나쁜 건 없다. 하지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예쁘고 잘 생긴 것을 능력과 등치시키는 것은 문제다. 다름을 틀림으로, 차이를 차별로 연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외모지상주의가 문제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키가 작다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취업시 불이익을 당하는 건 당연시할 정도였다. 취업 시즌만 되면 대중 매체에서는 비장한 목소리로 이런 현상을 질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구색 갖추기나 어르고 뺨 때리는 일과 다름없다. 언제 그런 발언을 했느냐는 듯, 외모를 앞세운 연예인들을 대중들의 우상으로 만드는 일에 예너지를 쏟아 붓는다. 이런 한국 사회의 이성과 위선, 그리고 자기기만은 병적인 외모지상주의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한때 한국인은 '어글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의 외모 집착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불자 세상보기

윤제학 본지 논설위원

외모지상주의, 정신적 허기

시선을 보내는 것 같다. 지난 달 1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 남자들 파워 위해 치장"이라는 제하의 흥미거리 기사를 실었다. '꽃미남' 안정환을 모델로 내세운 남성용 컬러 로션에 기초한 기사였지만, 다분히 조롱투다. 일정 부분 사실이라 치더라도 아직은 일부에 국한된 현상임을 한국인인 내가 더 잘 안다. 하지만 기사는 보편적인 일인 것처럼 작성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사가 국내 신문에서 인용 보도된 다음이다. 한국인들은 그런 보도를

접한 다음 최면이라도 걸린 듯 신념화하고 행동화한다. 환각제로 오용되는 약물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보도가 나가면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외로 봐 오지 않았던가.

청소년들의 외모지상주의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눈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 문구용 칼로 눈을 찌는 따위의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한 논문에 의하면 고교생의 40%가 성형 수술을 원한다고 한다. 또 '얼짱' 열풍이 인터넷을 감타하고 있다. 얼짱이라는 말은 중고생들 사이에서 학교나

반에서 얼굴이 가장 예쁜 혹은 잘 생긴 친구를 일컫는 은어였다. 그러나 인터넷에 얼짱이 얼굴을 내밀고부터는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10대들의 우상이 되었다.

'얼짱 신드롬'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10대들의 문화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선망하는 가치가 결국 '돈과 명성'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은 미래에도 하늘 높은 줄 모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왜곡됐을까. '은근과 끈기'는 그야말로 옛말이 되고 만 것일까.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 '바람 든 사회'다. '육체적 허영에 정신적 허기'.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모로 가도 서술만 가면 된다는 '결과중심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패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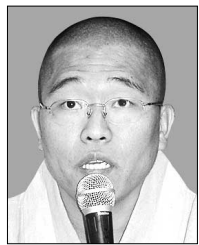
"환을 여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離幻即覺)". 원각경의 가르침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육체라는 헛것에 집착한 나머지 실속은 쪽정이 가 돼 가고 있다.

본문(本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군승특별교구 설치

'군인이기 전에 수행자' 명시해야

명칭보다 군법사 체질 개선이 시급



정범스님 조계사 재무국장

군포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군승교구가 반드시 '특별' 교구로 설치돼야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군승특별교구가 설치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불교 위원회와 별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불교위원회든 군승특별교구든 군포교가 잘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사문제를 비롯해 순조롭게 군포교가 진행될 수 있다면 '위원회'라는 협의체도 무관하다는 생각이다.

가톨릭의 경우도 군포교를 담당하는 교구를 '군중교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불교계에서 군이 군승 '특별' 교구를 설치해 많은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방부측에서 보더라도 천주교의 군중교구나 불교의 군불교위원회는 창구위원회 의미 밖에 없다.

종회에서 '군승특별교구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헌·종법령에 '특별교구'라는 예외조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종헌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가톨릭 군중법령과 유사하고 필요에 의해 요소요소 꿰맞춘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특히 교구장과 관련해 가톨릭 군중교구처럼 '교구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군승교구본사 주지스님'이란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군법사는 군내 불교 업무를 관장하면서 동시에 소속부대의 군종장교로서 정신전력강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임무가 충돌할 경우 어떤 임무를 우선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다.

군법사는 또 스님으로서 종단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소속 부대의 위계질서에 따라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이원화 된 체계에 대해서도 방편이 정해져 있지 않다. 군인이기 보다 수행자임을 강조하는 규정이 군승교구 설치 법안에 명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주장하기 앞서 군법사들이 스님들과 동등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군법사들의 체질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점이다.

군포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군승특별교구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군불교위원회는 교구 설치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교구명칭과 교구장의 권한, 분담금 등 세부내용에 있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10월 22일 포교원이 개최한 '군승특별교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했다. <정리=이동혁 기자>

군내 종단 위상강화에 기여할 것



전창웅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사무국장

군불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군포교 일선에서 있는 군법사들의 위상강화와 종단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군승 특별교구 설치에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군법사들은 스님의 신분과 군인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군의 특성상 이동이 잦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일반교구본사로 설치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 일반교구본사로 설치하려면 교구본사의 재산을 종단으로 귀속시켜야 하는데 군내 4백여 개의 군법당들을 종단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위원회'라는 명칭은 협의체라는 성격이 강하다. 단순한 협의체로 군포교에 임한다는 것은 종단의 군내 위상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교구로서 일관성 있는 명칭과 권위를 부

여했을 경우 군법사와 교구장의 권익 증진, 군내 종단 위상강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군불교를 위한 종단의 인사지원과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군승 특별교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교구로 군승교구가 설치될 경우 이에 따르는 종헌·종법령 제·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군불교위원회는 인식하고 있다. 교구설치가 급선무이므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군불교가 군승교구 설치를 놓고 논쟁하는 동안 개신교와 가톨릭은 인사처리로 군승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은 서울, 대구 등의 대교구에 필적할 만한 비중을 가지고 군중교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포교 활성화·효율화를 놓고 군승특별교구 설립 논의가 시작된 것이 10년이 넘었다. 군승특별교구가 하루 빨리 설치돼 군포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도 살리고 환경도 소중히

불교자연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10월 26일 월성 삼교리에서 산나물 씨를 뿌리는 행사를 열었다. 환경오염 등으로 사라져가는 산나물을 심어 우리 식탁에 자연의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또 불자원은 삼교리 산재마을과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도·농간의 협력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길 기대한다.

장군속매

불우이웃, 겨울이 무섭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불교계 복지시설들이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태풍 피해와 경제불황으로 도움이 손길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어 김장김치 보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 복지시설들은 자체적으로 '일일차집' 등을 통해 성금을 모으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양주시 앵무봉 지장기도 도량 대원정사 '산신님 철야정진 기도'**

양주시 장흥 계명산 자락 앵무봉에 위치한 대원정사는 예로부터 산신님이 계시던 깊은 산골로 큰 산 호랑이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산신님 영험 도량인 대원정사에서 원을 세우고 기도 정진하여 불보살님들의 가내(家內)에 만복이 깃들고 업장소멸과 사업 성취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기원 합니다.

[주지 해련 암장]

**점안법회 기념 산신님 21일간 철야정진 기도 안내**

- ▶ 입재 : 2003년 11월 2일(아기부처님 탄신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
- ▶ 회향 : 2003년 11월 22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산신각 불사 시주 동참

- 불사시주: 산신각, 코끼리 삼존각, 석등 2, 연등기등 8
- 이름을 올리신 분은 1인 10만원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시주 공덕 바랍니다.

▶계좌번호

- 농협 : 201058-52-003260(예금주 박경자) - 국민은행 : 267-24-0016-901(예금주 박경자)
- ※ 입금 후 증부소로 연락바랍니다.

◆산신기도 방법 대웅전 부처님을 친견한 후 산신님께 원을 세워 기도 하십시오.

◆차량 안내 (철야정진 기도 기간 매일 운행)

-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환승 주차장 앞 밤 10시 10분 출발
- 장흥 농협 앞 밤 10시 30분 출발

**기장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산 126번지 전화 031)855-5501,3

**고승 정명주 스님의 佛氣 달마도**

시방삼세에 늘 나누고 계시는 부처님의 여연안 모습

佛心天地海風

가장에도 사무실에도 사암정에도 壽松·鄭·銘·主 스님의 견어례 사진과 男·女 달마도를 걸어보세요. 온갖백은 근심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행운이 평행 하는답니다.

- 佛心: 부처님 가르침이란
- 天: 놀거리 ●地: 길거리 ●海: 넓거리 ●風: 바람이러니

장소: 청송주왕산  
시간: 1998년도 AM 9시경  
규격: 가로 51cm x 세로 66cm  
가격: 100,000 원

귀의 상보하옵고  
교승 스님께서 수많은 달마도를 점하신바 사나운 기운이 솟아남을 감지하시고 그원인을 찾던중 달마에게도 찍이 있음을 알아 탄생시킨 세계최초의 女子달마도와 관음 달마도는 주문후 3,4일의 시일이 걸릴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경남청원 명주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 입금계좌: 농협 821146-52-038830 [예금주: 정지완]
- 연락처: 055-275-1372 / 055-262-0928 ■휴대폰: 019-574-0928 교승 정명주

경남 창원시 중앙동 58-9번지  
**한국대선불교조계종 명주사** 한글홈페이지: 명주사